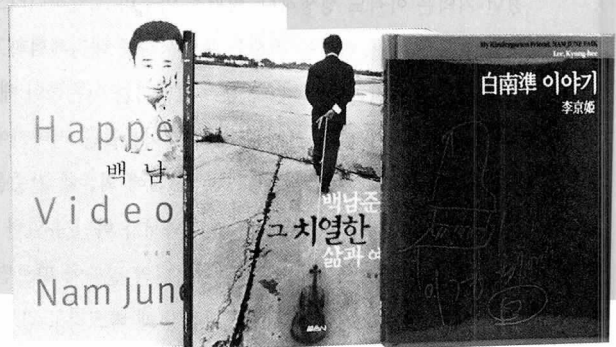


백남준의 삶과 예술세계 조명하는 책들 나와

‘인간’ 백남준과 다양한 예술적 행보 담아...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연구성과는 거두지 못해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현존 예술가의 전시회라 전시장을 찾는 발길이 많을 것 같으나 실상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백남준의 예술은 너무나 난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서점가에 나와 있는 백남준 관련서는 그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거장을 다룬 책들은 많다. 예술애호가들의 관심과 금급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남준은 어떨까? 그의 명성을 감안하면 서점에 책이 넘쳐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의외로 백남준 관련서는 단 세권에 불과하다. 물론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백남준은 어렵다. 다양한 미디어와 접합된 철학적 메시지를 제대로 분석해내기란 쉽지 않다. 또 텍스트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퍼포먼스, 해프닝은 일회적이고 비디오 작품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

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백남준에 대한 소규모 연구활동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책으로 펴낼 만한 학문적인 ‘투자’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남준 예술의 일관성 강조한 연구서

그런 점에서 작년 말에 출간된 《백남준—해프닝 비디오 아트》(김홍희, 디자인하우스)는 의미가 깊은 책이다. 백남준의 예술적 연대기, 작품세계 분석, 철학적 성찰 등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이

책은 1992년 《백남준과 그의 예술》의 개정증보판으로 초판에는 없었던 ‘백남준의 플럭서스 친구들’을 첨가했고, 그동안 쓴 소논문들을 덧붙였다. 또 시각자료를 한층 보완해 백남준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

1부는 석사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지은이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소통과 관객참여 예술의 전형으로 파악한다. 또 초기 작업인 ‘행위음악’ ‘참여-TV’의 연장선상에서 ‘비디오아트’를 파악함으로써 백남준 예술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파인아트적 입장에서 조명한 백남준의 예술세계

《백남준—해프닝 비디오 아트》 펴낸 김홍희 관장



전문 전시공간 <쌈지 스페이스>로 찾아가 김홍희 관장(53, 홍익대 미술학과 겸직교수)을 만났다. 김관장은 그동안 비디오 아트를 연구하며 세계의 거장들과 폭넓은 교류를 나눠왔다. 현재 전시프로젝트 기획자로 일하면서 모교에 강의도 나간다.

— 백남준은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기행적·파행적 예술가라는 인상이 굳어진 듯하다. 사람들의 인식이 센세이션얼리즘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백남준을 제대로 연구·소개하는 것

도 어려운데, 자료들이 워낙 이곳저곳 흩어져 있고 그 형식도 난해하기 때문이다. 외국학자의 논문을 읽어봐도 백남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드물다.”

— “예술은 신화를 파는 사기다”라는 백남준의 말을 어떻게 보는가?

“예술은 신화를 매개체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사물의 진상보다는

이미지, 형상을 통해 공통의 관심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신화를 판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백남준의 ‘사기론’은 예술의 본질에 대한 회의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술이 매체 제도와 연계를 맺음으로써 존재론적 한계에 이른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백남준이 현대예술이나 대중문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백남준이 대중문화와 순수문화의 간격을 줄이는데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단순하게 팝아트 쪽으로 몰아가면 곤란하다.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끌어들이며 장르를 확장시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티브에 불과하다. 백남준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파인아트(순수예술)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 이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3부부터 읽어라.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논문과 플럭서스 예술가를 다룬 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하다.”

김관장은 백남준 소개에 적극적이다. 2002년 월드컵에 맞춰 한·일 양국에서 개최할 《백남준·시계코 2인전》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백남준 예술의 모태는 1960년 독일의 '플럭서스' 운동이다. 라틴어로 '흐름'이란 뜻을 가진 이 그룹의 활동취지는 다다이즘과 비슷해 '네오-다다'로 불리기도 했다. 백남준의 격렬하고도 전위적인 행위예술은 거의가 플럭서스의 정신에 기반한 것이다. 또 비디오 아트 존재방식을 '복합매체'로 파악한다. 저자는 '복합매체'를 다수매체의 총합이나 공존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예술형식이라고 정의한다. 고리타분한 제도권 예술과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비결정성' 또한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어서 '비디오 아트의 참여적 양상'을 살핀다. 이것은 전자·심리·대중매체로 분할되는 매체들의 고유한 가치 창출에 의해 수행된다. 전자이미지는 다양하게 바뀌며 관람자의 지각능력을 고양시킨다. 화면은 '자아 분리'를 가능케 하는 '거울' 기능을 함으로써 심리적 차원의 참여를 수행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테이프 작업, 브라운관의 내부회로 조작, TV설치 등 비디오 아트의 제작과정도 설명돼 있어 작품 감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플럭서스 친구들'에선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등 백남준 주변의 예술가 17명을 약력, 주요작품, 경향별로 정리했다. 마지막 3부에선 연대별로 백남준의 삶을 복원해 놓았다.

삶에 비중 둔 예술적 연대기

《백남준 치열한 삶과 예술》(이웅우, 열음사)은 미술평론가며 백남준의 오랜 지기인 저자가 1999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글을 보완해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문화의 틀 속에서 '인간' 백남준을 이해하고자 한 시도다. 지은이는 책머리에서 "백남준을 동네 이름처럼 부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신화가 아닌 예술가로 우리 곁에 돌아올 것이라 말한다.

지은이는 재담꾼으로서 백남준의 면모를 흥미롭게 묘사한다. 그는 코믹하면서도 어눌한 화법으로 상대를 자신의 대화에 끌어들었다. "예술은 사기다" "강한 이빨을 가져라" "호랑이는 살아있다" 등 백남준의 어록과 그에 얽힌 일화도 소개한다. 이렇듯 기이한 발언이나 에피소드와 함께 작품을 개관하면서 백남준 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이끌고 있다.

《백남준 이야기》(이경희, 열화당)의 지은이는 백남준의 유치원 시절 친구다. 이 책은 백남준의 유년기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어릴 때부터 집과 학교를 함께 오가며 나눴던 내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은이는, 백남준과의 심리적 교감을 세밀하게 사색한다. 1940년대 초반 백남준은 '큰 대문 집'에 살면서 '캐딜락'을 타고 등교할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었다. 둘은 을지로 2가에서 동대문까지 전차에 올라타 서울거리를 구경하며 함께 귀가하곤 했다. 지은이는 유년기의 온화한 환경 덕택에 백남준의 천재성이 보호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이 책엔 백남준의 사적인 행적이 많이 담겨 있다. 지기들에게 '특유의' 사인을 해서 보낸 편지가 소개되고, 이들과 나눈 대화도 실려 있어 여러 가지로 흥미롭다. 지은이는 이런 개인사가 백남준 예술의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

백남준은 외롭다. 나는 백남준이 정서로는 한국과 연결돼 있지만 막상 한국 지식사회와 예술계 일반에는 머리 둘 곳이 없지 않나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촌동네'기 때문이다. 촌동네. 그렇다. 무한발명으로 치닫는 게임 속에 예술장르 중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현대미술 영역과 관련해서 한국과 한국의 지식사회는 과연 '후미진 변방' 그것이다.

최근 선보인 세권의 책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대로 유용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용우는 아마도 국내 평론가들 가운데 백남준과 가장 빈번히 접촉한 사람이고, 김홍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이 펴낸 책이란 자신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개해 국내외 지식대중들에게 '빛'을 갠 행위일 터인데, 두 권의 책은 썩 성공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유감이다.

이들테면 백남준 예술의 출발점이 플럭서스 운동이라는 점, 그것이 기존 서유럽의 예술 행위에 대한 반대명제고, 따라서 백남준의 경우 '안티 서구'의 상당한 자양분을 한국과 한국사회의 문화코드에서 길어올리고 있다는 점 등은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백남준 관련 교양서라면 한국의 지식대중에게 백남준과 한치의 오차 없는 '교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두 책은 뜻뜻미지근한 서술에 그친 감이 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열리는 《백남준의 세계》를 찾는 관람객들이 예상외로 저조하거나, 높은 이름 값에 끌려 주로 학생층만 찾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다. 나는 왜 그런지를 책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책에서 그렇게 핵심을 짚어 친절을 베풀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이들테면 이용우의 책은 '주변을 맴돌고 있고', 김홍희 책은 요령없는 문장과 설명이 지루하다. 이경희의 회고 역시 매우 흥미롭게 읽히지만, 백남준이 '태어나 자랄 때부터 남달랐다'는 점을 너무 강조해 외려 공감대를 잃은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결국 미술은 미술 장르에 갇혀있고, 출판 역시 출판 장르에 매몰돼 있다. 인문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틈만 나면 학제(學際) 연구가 언급되면서도 막상 분과학문의 벽을 넘나드는 작업이 드물듯이, 현실은 출판과 미술이 서로 칸막이를 쳐놓은 상황이다. 최근 선보인 세권의 책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뒀을 뿐이다.

— 조우석 (《중앙일보》출판팀장)

이해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10월 29일까지 삼성미술관과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이 공동주최하는 《백남준의 세계》가 호암갤러리와 로댕갤러리에서 열린다. 뇌졸중으로 운신이 불편한 가운데도 '레이저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로 예술지평을 확장한 노예술가의 최근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미 발표됐던 작품들의 다큐멘터리 자료도 함께 공개되고, 감상을 돕기 위한 전문가의 강의도 있다. 이는 만큼 본다고, 서점가에 나와 있는 관련서를 읽고 관람한다면, 백남준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하다. — 강성민 기자